

2020
07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2 COVER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04 KAMT NEWS

평창군과 코로나19 극복 간담회
및 감사패 전달

05 EDUCATION

7월 1일부터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시작

06 INTERVIEW

비오메리코리아 김대환 대표

07 INTERVIEW

강동경희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이승훈 회원 인터뷰

제450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아래 열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6월 13일 토요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총회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이 심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최소 인원 으로 대전에서 열렸다.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됐다.

총회의 시작에 앞서 지형선 총회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도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힘쓰고 계신 대의원님 및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뤄져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인호 협회장



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전국의 6만8천명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이번 총회 이후 혈액관리법, 감염관리법, 건강검진법 등 불합리한 법령들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입장부터 총회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는 정문에서부터 열 감지기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진행 요원들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모든 감염 조치를 동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대의원 지정좌석제를 운용했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입장부터 진행까지, 참석자들을 위한 방역·감염예방 최우선

이날 총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을 감안, 사전부터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진행했다. 특히 협회 사무국은 사전 답사 과정에서 동선과 좌석배치 등을 고려해 입장과 진행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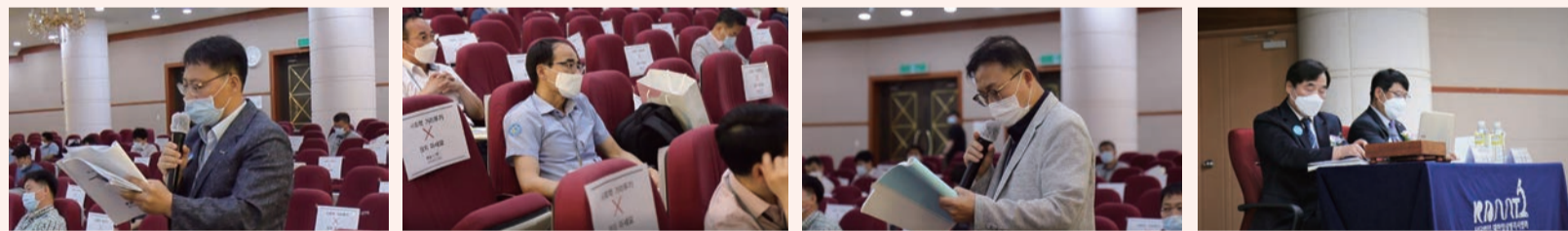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공, 입장시 열화상카메라 통과,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에 따른 지정좌석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총회 도중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러한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며 이날 총회에 임했고, 이에 단 한 명의 의심 환자 및 유증상자 없이 손조롭게 진행이 이뤄졌다



감염관리 필수인원에 임상병리사 포함 개정 추진,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정책 연대 개발 및 협조 등 주요 사업계획안, 정관 개정안 의결

이날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먼저 2019년 사업실적, 감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020년 예산(안)은 지난 2월 최소회해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협회의 2020년 사업계획안과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감염관리 필수인원에 임상병리사 포함 개정 추진', '임상병리사

학제 단일화 및 인력수급 적정화', '검체 수가 및 임상병리 검사 수가 개발', '임상병리사 평가원 기초 준비 및 평가 시범사업 실시' 등 26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회원 출산 기념품 지급 안내

협회에서는 출산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출산기념품과 협회비 및 면허신고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① 지급품목: 출산선물(내의), 협회장 인사말&면허신고 안내문
- ② 적용기준: 출산대상자 및 직계 가족(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용)
- ③ 증빙자료: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접수일자: 매월 10일 이전
- ⑤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중소병의원 상조 복지사업 안내

협회에서는 중소병의원 회원 대상으로 상조 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조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각 시도지회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① 대상자: 2020년 3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회원으로서는 직계부모 사망 시 지급
- ② 지급액: 10만원
- ③ 제출서류: 경조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 ④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중앙회소식

코로나19 진단검사 과정 영상 공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는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과정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공개했다. 협회는 코로나19 검사과정을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검체 채취부터 핵산 추출, RT-PCR 검사 및 결과 판독까지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영상과 함께 자막을 통해 진단검사의 실무자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검체 채취부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최종 결과 해석 전까지 코로나19의 진

단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보부는 해당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 주요 의료기관을 찾아 임상병리사의 코로나19 확진과정을 촬영했다. 진행 및 내레이션은 협회 홍보대사인 윤희정 아나운서가 맡았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영어 자막·더빙 영상도 함께 제작해 해외의 임상병리사 학회 및 단체에 전달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진단검사 역량을 알렸다.

김건한 중앙회 공보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진단검사 역량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본 동영상을 통해 코로나19의 검사 과정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과정 영상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MOU 체결



우리 협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 확충을 위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백중수)와 전략적 협력 및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비롯해 백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이사, 오평록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장,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 권용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김권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유행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해 진단검사 및 임상병리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진단검사 분야의 실무자인 임상병리사와 의료기기 업계의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점을 두 기관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효율적 지원, 임상병리사의 학술출진 및 의료기기 습득에 대한 기관·협회로서의 업무, 의료기기산업 발전, 보건의료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4년부터 의료기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새로운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허가를 받는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원화된 지원 체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는 '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되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제조된 의료기기의 출하여부를 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 감독, 기록관리,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은 이를 고려해 면허(임상병리사 등)와 학위, 전공 등을 품질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아직은 대부분의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취업만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등 회원들이 의료기기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병리협보


임상병리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실습니다.

■ 광고문의

전화번호 : 02-3291-5435

팩스번호 : 02-3291-5621

E-mail : kamtreporter@daum.net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소식

평창군과 코로나19 극복 간담회 진행 및 감사패 전달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19일 금요일 강원도 평창군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장인호 협회장과 한왕기 평창군수,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 정문태 평창군의료원 감염병관리 담당자가 참석해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평창군의 방역사례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평창군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평창군은 군내의 행사를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각종 일손돕기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왕기 평창군수에게 협회의 감사패도 전달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평창군수로 취임했다. 협회는 지난해 8월 제57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해 평창군의 지원 덕분에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평창군과 업무협약 등 다양한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화 18대 회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무총리 표창 받아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26명에게 정부 표창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되는 수석에서 정태화 전 회장(이하 정태화 회장)을 비롯한 11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정태화 회장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입대해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던 정태화 회장은 전후에는 40여년간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며 국가방역에 몸을 담았다. 또한 협회 제18대 회장(1994~96)을 맡았다.

정태화 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155마일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 국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며 "힘들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06.01 ~ 06.30

- ▶ 6월 4일: 제451차 상임이사회가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협회관 방역작업 실시 ▲2020년도 연구과제 공고 ▲보건복지부 업무연락 관련 2020년 협회 하반기 보수교육 논의 ▲홍보대사 위촉 보도자료 배포 ▲시도분과 및 위원회 홈페이지 추가 개발의 건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협회관 가치평가 위탁영역 실시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 ▶ 6월 5일: 학술발전위원회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 6월 11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협회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불법의료사례에 대한 분석, 보고가 이루어졌다.
- ▶ 6월 12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협회관 가치평가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 6월 19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학술후원상 심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 ▶ 6월 25일: 보건의료노조 1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06.01 ~ 06.30

- ▶ 6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 진행
- ▶ 6월 3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 ▶ 6월 5일: 강원 원주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업무협약 체결. 백중수 원장과 임상병리사의 의료기기업계 진출에 대해 논의
- ▶ 6월 9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총회의장단 회의에 참석
- ▶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SBS CNBC 관계자들과 간담회 참석. 미디어 환경 및 웹세미나에 대해 논의
- ▶ 6월 19일: 강원 평창군을 방문해 한왕기 평창군수와 코로나19 극복 간담회 진행
- ▶ 6월 22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진행.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논의
- ▶ 6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후원사와 간담회 진행

7월 1일부터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받는다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조직위원장 김홍주 · 이하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0월 8일, 9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종합학술대회는 임상병리사 면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 평점 4점 또는 8점이 인정되는 임상병리사 최대의 학술대회다. 코로나19 여파로 학회는 물론 시도지회에서 이뤄지는 보수교육이 전면 취소됐던 만큼 제58회 종합학술대회는 보수교육 점수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전등록 시 학회 등록비는 정회원 기준 4평점 4만원, 8평점은 8만원이다. 사전등록은 9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www.kamt.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 내 당부의 글을 통해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우려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상 항공 예약을 돕기 위해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당부의 글 전문이다.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오픈에 따른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유행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역량과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58회 종합학술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개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학술대회를 최선을 다해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며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9일~10일 양일간 열리는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항공 예약을 돕기 위해 사전등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정상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진행할 것이며, 예약과 관련해서는 회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조직위원회는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임상병리분야의 최신 지견과 회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300여명 회원과 중앙회는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안전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도시 제주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장 김 홍 주 대 회장 신 영 숙 협 회장 장 인 호 드림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보수교육 '장바구니 시스템 도입'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시 '장바구니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장바구니 시스템'이란 본인이 듣고 싶은 온라인 강의를 홈페이지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제도로 온라인 쇼핑물 '장바구니'와 유사한 기능이다.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는 여러 개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결제할 때 각 강의에 대해 하나씩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바구니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미리 정해놓고 결제할 때 체크한 강의를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시스템 상 '장바구니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협회는 홈페이지 2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이 전달하는 불편한 부분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임상미생물검사에 특화된 제품과 솔루션으로 진단업계와 파트너로 성장할 것”

김대환 비오메리오크리아 대표

프랑스에 본사를 둔 비오메리오크(Biomerieux) 사는 진단업계 미생물 분야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1월, 비오메리오크의 한국 지사장으로 취임한 김대환 대표는 “국내 진단검사는 이미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병리협보는 김대환 대표를 직접 만나 회사의 이야기와 향후 비전, 코로나19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비오메리오는 어떤 회사인가

비오메리오는 미생물검사와 감염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회사로서, 1967년 설립 이래 근대 임상미생물학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 직접적으로는 감염성 질환 진단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넓게는 환자의 치료 및 감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Q 지난 1월 대표에 취임했다. 그 전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처음 진단업계에 첫 발을 디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진단업계에서 일해왔다. 전공이 분자생물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자진단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이 분자진단이 한창 도입되던 시기였다. 바이러스 질환 위주로 시작된 분자진단의 적용분야가 유전자검사, 동반진단, 조직 병리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진단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다.

비오메리오크와의 인연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본사에서 시작했다. 동남아 지역 임상미생물검사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단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임상 미생물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자진단, 검사실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항생제내성관리 (Antimicrobial Stewardship)가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

Q 현재 비오메리오크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오메리오크의 비교우위가 있다면

비오메리오크 솔루션의 근간은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내성 검사 시스템이다. 고전적인 배양 기반의 검사기법에 더불어 Mass Spec과 PCR 기반의 검사방법의 도입에도 앞서가고 있고, 더 나아가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생물 유전체 분석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면역검사 분야에서는 미생물 동정과 더불어 감염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오마커 검사와 심장질환 표지자와 같은 응급 검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고, 환자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감염병관리의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비오메리오크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현재 검사실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검사 결과 분석과 시스템 운영 분석을 위한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검사실 업무 흐름 개선 컨설팅, 국제적인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사업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Q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가?

코로나 19 응급 검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오메리오크의 우수한 검사를 국내에 아직 도입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비오메리오크는 1 시간 이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바이오파이어 코로나19 검사를 출시해, 지난 4월 미국 FDA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1시간 이내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상기도 감염에 관련된 병원체 22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도 5월에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응급 검사법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가 마련돼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가 진행중이다. 방역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산 초기인 2월부터 코로나19 검사 방법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지만, 응급수술환자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 바이오파이어 검사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비오메리오크리아에서 임상병리사가 있나? 있다면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궁금하다

진단검사 운영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진단회사의 여러 업무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병리학 전공자들과 같이 협력한 경험이 있고, 현재 비오메리오크리아에도 5명의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문성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학술 및 기술지원업 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까지 기회가 있다.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강점에 안주한다면 그 전문성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고집하다가 커리어 개발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보다 관리능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회사 전반의 운영에 대한 이해와 타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Q 비오메리오크에서 일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 해야 하나? 비오메리오크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있다면?

영어는 잘하는 건 분명히 메리트지만, 직원 선발의 주된 조건은 아니다. 영어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소통 능력을 평가



하기는 하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다. 반면, 부서장들을 비롯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와의 소통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소통 능력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결국, 꾸준한 자기계발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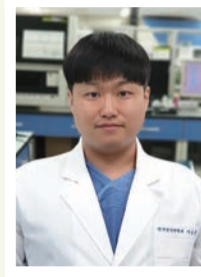
비오메리오크는 공공의료에 대한 설립자의 철학과 사람 중심의 경영 방식을 조직 전반에 투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기대하는 역량을 업무능력과 신뢰, 이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다. 비오메리오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 반면 신뢰의 영역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훈련이나 교육이 쉽지 않다. 비오메리오크는 이 신뢰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리더들을 선발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미생물검사 분야의 전망을 말한다면

광대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진단분야는 매출규모로는 아직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진단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환자 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비단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서 정보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진단검사가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중 하나이다. 검사 결과(data)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된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고, 나아가 환자관리를 위한 통찰력 (insight)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단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위급한 감염성 질환들을 다루는 미생물검사 분야에서 검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직접 나서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이승훈 회원 인터뷰

개원 이래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온 강동경희대병원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강동경희대병원 직원들은 지난 6월 3일 보건의료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노조 지부장에는 임상병리사인 이승훈 회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됐다. 병리협보는 이승훈 지부장에게 강동경희대병원의 상황과 임상병리사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Q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초대 지부장을 맡으셨습니다.

A 안녕하세요. 초대 지부장으로써 노동조합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정적인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깨고 노동조합의 참된 가치를 병원 선생님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Q 어떻게 지부장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난해 7월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병원 재단인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연락해 보건의료노조와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년 간의 준비 끝에 지난 6월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진행했고 선거를 통해 제가 초대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초대 지부장을 맡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A 이전까지는 일반 하던 직원이다 보니 노동조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모집도 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전임자가 없어 제 근무 시간을 지켜 가며 노동조합 일을 해야 하는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Q 그동안 임상병리사로 일하며 불합리하다고 느낀 관행이 있었을까요?

A 정확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원부나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회원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요. 병원에서는 연봉제라는 이름 아래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 외 근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급을 병원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부장에 취임하면서 강동경희대병원의 차등성과연봉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었는데요.

A 우리가 받는 임금이 직급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임금 수

준이 정확히 정해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과연봉제라 할지라도 직급별로 균형 있는 임금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어떤 병원에서도 볼 수 없는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는 원칙을 두 차례 적용하였습니다. 낮은 연차의 직원은 연봉을 높게 올려주고, 높은 연차의 연봉을 적게 올려준 것인데 오래 일한 직원들이 가진 능력과 그동안 병원에 헌신한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Q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업무환경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A 차등성과연봉제와 함께 인사제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의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이 시급한데요. 의사들의 갑질과 언어폭력,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의사들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Q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건가요?

A 이해자가 의사와 피해자가 일반적 근로자면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대표로 선출된 노사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Q 강동경희대병원 외에도 많은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도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 임상병리사의 환경은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어보려 하십시오. 용기를 낸다면 그 용기에 부응해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기념 봉헌식 개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난 6월 25일 개원을 기념하는 봉헌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으로 이전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11만 1633㎡, 지상 13층, 지하 4층, 708병상 규모로 중환자실 59병상, 수술실 18실, 응급진료센터 29병상을 갖추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봉헌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과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윤도복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승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백근기 용인시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33개 진료과와 심장혈관센터, 퇴행성뇌질환센터, 디지털의료신원센터 등 3개의 특성화센터를 운영하며 특화된 의로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검사의학팀(팀장 김광우)은 질 높은 검사 제공을 통한 높은 만족도(High Quality), 정확한 환자 확인(Patient identification), 검사시간 단축(Time saving)을 위해 채혈실에서 검사장비까지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신속한 검사결과를 임상과에 제공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팀 현재 인력 현황은 임상병리사 회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병원과 달리 진단검사의학팀장이 기능검사실 및 체크업(검진)의 임상병리사 26명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병리팀(팀장 정형재)은 인체유래물은행 포함 현재 10명의 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Digital pathology system을 구축하였고, 국내 최초 실시간 관독과 외부 원격 협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 AI 기반 자동 음성 인식 솔루션을 구축하여 '디지털 병리'를 선도하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임상병리사 회원은 이번 이전을 통해 9명에서 76명으로 대폭 인원이 충원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임상병리학회에서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

연구과제 특집 2탄

병리협보는 2019년 협회 연구과제 결과를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면 여건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점 참고 바랍니다.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양병선)

임상병리사 인력 산정에 대한 연구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가체제와 항목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점수체계(RBRVS: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도입하였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생민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 임상현실에서 진료비용 근거자료 재구축의 필요성 및 자료의 정확도향상,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직접비용 자료에 포함되는 항목(인력, 재료, 장비) 분류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주기적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조사 관찰을 통한 조정 기간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0년 시점의 임상현실이 반영된 2차 연구 이후, 현 시점에서의 의사업무 형태와 진료비용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점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이 계속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시작된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의 제약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여 상대가치점수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임상병리사 행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질관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 제시 및 인력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상대가치 근거자료 검증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임상병리사 행위에 따른 소요시간
- 둘째,** 상대가치점수와 임상병리사 행위의 인과관계
- 셋째,** 상대가치점수 가산율을 위한 변수 조사 및 분석
- 넷째,** 의사 수와 임상병리사 수의 상관관계
- 다섯째,** 상대가치점수에서 임상병리사의 기여도(여유율 포함)
- 여섯째,**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표준안 제시
 - 가) 현재 평균 인력 산정
 - 나) DEA(자료포락)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
- 일곱째,** 임상병리사의 질 관리 검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 제시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팀의 구성

임상병리사 업무량 평가에 따른 적정 인력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교수 4인과 임상현장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최종 6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나. 방법 및 절차

교수, 임상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논의에 의해 주요인자 선정을 위해 8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상대가치점수 가산율과 관련변수를 조사하였다.

1) 임상병리사 행위와 상대가치점수의 인과관계

가) 임상병리사 행위와 상대가치점수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행위행정의 및 의사업무량 산정에 관한 연구(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위원회)[1]에 사용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인정받은 의사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의 문구를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그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나) 8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설문1. 임상병리사 행위분류별 소요시간 조사를 실시 하였다.

다) 임상병리사 행위의 대분류로는 검사실운영, 정도관리, 지침서 등이었다.

2) 상대가치점수 가산율을 위한 변수 조사 및 분석

가) 8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하여 설문2. 임상병리사인력산정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상기관의 규모로 허가병상수, 일일평균재원환자수, 일일평균외래환자수,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임상병리사수(정규직)를 알아보았다.

다) 대상기관의 질관리 점수로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와 전문인력영역(점수) 및 함께, 기관별 등급 및 질가산, 기관별 년진단검사건수(병리&생리 제외),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를 조사하였다.

3)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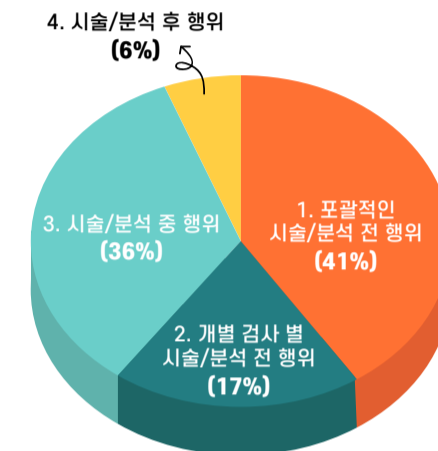
1. 임상병리사의 행위 분류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분석 전, 분석 중 및 분석 후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과 의 의료행위는 그 특수성이 있어서 매우 많은 종류에 대하여 한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검사 수립 전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이 매우 크며,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정도관리, 질관리 등 전체적으로 검사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행위를 개별행위의 분석 전 행위에 포함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분석 전 행위를 2종류로 나누어서 검사실에서 검사가 수립되어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검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포괄적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행위는 포괄적인 분석 전 행위로 분류하고, 개별 검사에서 요구되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행위는 개별 검사별 분석 전 행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2. 임상병리사의 행위분류별 소요시간

임상병리사의 행위분류별 소요시간에 대하여 국내 6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1. 포괄적인 분석 전 행위, 2. 개별 검사 별 분석 전 행위, 3. 분석 중 행위, 4. 분석 후 행위로 나눠 분석하였다. 포괄적인 분석 전 행위는 41%(11,444분), 분석 중 행위 36%(10,103분), 개별 검사 별 분석 전 행위 17%(4,699분), 분석 후 행위 6%(1,760분) 순으로 나타내었다(표 1).

(표 1) 임상병리사의 행위분류 별 소요시간 분포(%)



3.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표준안

가.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

자료포락분석(DEA)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7개 표본 병원의 상대적 효율성이 동일한 VRS 값을 모두 1로 하는(등생산성) 임상병리사 인력을 추정할 때 A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779.5점이었다. B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098.2점이었다. C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091.0점이었다. D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321.6점이었다. E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49,809.0점이었다. F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50,855.7점이었다. G병원의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47,862.9점이었다. 평균은 49,974점이었다.(표 2)

(표2)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병원별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

병원	투입요소			산출요소		상대적효율성		투입원(결과사항)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
	전문 의 (명)	임상병리사 (명)	허가병상 (개)	상대가치점수	검사건수	CRS	VRS	전문 의 (명)	임상병리사 (명)	허가병상 (개)	
A	8	78	1,100	3,960,801	8,874,444	1.0	1.0	8	78	1,100	50,779.5
B	13	134	1,320	6,713,156	18,631,364	1.0	1.0	13	134	1,320	50,098.2
C	8	80	1,111	4,007,280	11,757,801	1.0	1.0	8	80	1,111	50,091.0
D	7	71	920	3,572,832	10,230,446	1.0	1.0	7	71	920	50,321.6
E	7	75	1,316	3,735,675	11,503,323	1.0	1.0	7	75	1,316	49,809.0
F	7	68	956	3,458,188	8,640,071	1.0	1.0	7	68	956	50,855.7
G	6	58	817	2,776,050	7,307,050	0.95	1.0	6	58	817	47,862.9
Mean											49,974.0

V.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에 참여한 8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균 허가병상수는 1,023병상, 일일 평균재원환자수 808명, 일일평균외래환자수는 3,053으로 사회적으로 대형병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1,000명이상의 규모에 해당하였다.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의 1인당 임상병리사수가 낮은 곳은 6.7명, 높은 곳은 31.5명으로 나타나 전문의 수 대 임상병리사수는 많은 편차이를 보였다.

2. 결론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1. 본 연구에 참여한 8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균 허가병상수는 1,023병상, 일일평균재원환자수 808명, 일일평균외래환자수는 3,053으로 사회적으로 대형병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1,000명이상의 규모에 해당하였다.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의 1인당 임상병리사수가 낮은 곳은 6.7명, 높은 곳은 31.5명으로 나타나 전문의 수 대 임상병리사수는 많은 편차를 보였다.

2. 임상병리사의 행위분류별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과정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1. 포괄적인 분석 전 행위, 2. 개별 검사 별 분석 전 행위, 3. 분석 중 행위, 4. 분석 후 행위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포괄적인 분석 전 행위는 41%(11,444분), 분석 중 행위 36%(10,103분), 개별 검사 별 분석 전 행위 17%(4,699분), 분석 후 행위 6%(1,760분) 순으로 나타나 분석 중 행위는 자동화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검사실 운영, 정도관리 등의 강화로 포괄적 분석 전 행위의 시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연구 참여기관의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와 전문인력영역(점수) 및 함께(점수) 평균은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5명, 전문인력영역(점수) 18점, 함께(점수) 78점 이므로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2-7명 1.6, 전문인력영역(점수) 0-25점, 함께(점수) 60-85점으로 평균 표준편차는 상급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1.6, 전문인력영역(점수) 9.9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보다는 전문인력영역(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연구기관의 등급 및 가산율(%) 보면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에 해당하여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5. 2018년 기관별 총 건강보험청구 진단검사건수(병리&생리제외)와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기관의 병리 및 생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6. 자료포락분석(DEA)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7개 표본 병원의 상대적 효율성이 동일한 VRS 값을 모두 1로 하는(등생산성) 임상병리사 인력을 추정할 때 병원의 평균 임상병리사 1인당 상대가치점수는 49,974점이었다.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표본 병원이 7개로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화가 어려우며, 추후 최소 20개 이상의 병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반화의 기반을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 최초로 북한의 임상검사인력 연구한 대한임상검사과학회

구본경 편집부위원장(삼성서울병원)은 김대중 사업부회장, 주세익 교수(대전대학교), 장인호 협회장과 함께 국내 최초로 '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고찰' 연구주제를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게재하였다.

구본경 등 연구자들은 "북한의 의학전문학교에 '실험검사반(또는 임상병리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의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자료가 극히 한정적인 관계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접 국가의 자료와 비교 하면서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폐쇄되어있는 북한의 의료정보를 구글(Google, https://www.google.co.kr)과 바이두(百度, https://baike.baidu.com)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북한 보건의료인력, 남북한 의학교육, 통일의료'를 주제로 검색한 후 북한의 보건일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수집하여 재구성하였다. 이후 '러시아 및 중국의 임상검사인력' 등의 주제를 통해서 수집된 문헌을 토대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임상검사인력 양성체계를 비교하였다.

북한 의학용어 대부분이 러시아어, 라틴어(진단명과 치료명 등이 주로 라틴어로 통용), 영어 등으로 이뤄진 탓에 영어 위주의 국내 의료인 국가면허시험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직능의 경우 통일의료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각각 발표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s)와 유사한 직능이 있지만, 의학전문학교에 대한 내용이 매우 드물어 구체적 교육과정과 직업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협회는 2020년 제58회 국제학술대회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을 대비하는 임상병리사'라는 슬로건으로 10월 9~10일 양일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구본경 편집부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학과교수, 대학생들이 북한의 보건 의료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통일의료에 대한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강현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국책 사업 연이어 선정

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강현 교수가 연이어 국책사업을 따내며 바이오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바이오메디컬분야 연구개발을 이끈다.

강현 교수의 <3차원 가상구조 분자모델링 기반 개량형 펩티도미메틱 소재 개발>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강현 교수는 펩타이드 합성 및 솔루션 전문 기업 ㈜에이엔랩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연구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산업분야, 창의산업분야, 소재부품 등 3개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강현 교수의 과제는 창의산업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실화합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 C 880I, Dx 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 I 800
 HEMATOLOGY Dx 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주)중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과제 선정에 따라 2024년까지 5년간 43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메디컬분야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강현 교수는 표적 단백질질을 3차원 가상구조로 분자모델링한 후 자동화된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원료 소재를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해 연구, 개발하게 된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료 소재에 대한 임상시험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부작용이 없는 선도물질(lead compounds)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어, 수개월이 걸리던 원료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강현 교수는 "이 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활용되는 기술로, 의약품 산업에서 원료 소재를 찾는 데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현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지원사업인 '2020년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에도 선정되어 3년간 13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행하는 피부과학 응용 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이다.

2014년 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부임한 강현 교수는 임상병리사로서 임상분자생물학, 신약개발 및 바이오 원료 소재 분야를 교육, 연구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는 임상분자생물학, 임상생화학, 임상미생물학, 조직병리학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은 기초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전공지식을 강화하여 대학과 교원, 의약품 신약개발 담당, 바이오텍 기술담당 등 보건·의료·바이오 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개원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6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에 최신 검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춘 광주호남검사센터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검체 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2014년 6월 부산경남검사센터, 2020년 1월 대구경북검사센터에 이어 씨젠의료재단의 3번째 지역 검사센터인 광주호남검사센터는 진단검사의학·분자진단·병리학 분야에서 실시간 검체운송 및 응급 검사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검체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분자진단 검사 분야에서 하루 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ONE DAY 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며, 검사 전 분야에서 철저한 정도관리와 검체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병·의원의 임상적 진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광주호남검사센터는 수도권에 편중된 검체 검사의 집중화를 해소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이끌며 광주·호남 지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광주호남검사센터 초대 대표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박창수 대표원장은 "광주·호남 지역의 의료 현황 및 학계의 요구와 제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차게 출발하는 (재)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개원 인사를 전했다.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7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49호 당첨자]

● 서진선 회원: 몇개월동안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어 의료진과 국민들이 모두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한결같이 마스크착용하며 다들 각자 위치에서 고생하시는 모습과 화이팅이란 단어가 적힌 종이마저도 몽글하게 만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그날까지 다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임상병리사님들 화이팅!

● 양수진 회원: "김운정 회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제목의 인터뷰가 제일 좋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만이 내놓을 수 있는 김운정 회원의 밝고 건강한 답변 속에서 일과 취미 생활, 그 무엇도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는 그녀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임상병리사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탈을 꿈꾸는 임상병리사'라는 그녀의 닉네임도 신선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세상에 알려준 그녀에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안찬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 정년퇴직

안찬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이 33년간 몸담았던 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에서 퇴직했다. 안찬 회장은 마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1987년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 입사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을 거쳐 거창병원에서 검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6월 30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안찬 회장은 병원 활동과 함께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마산대학교 등에서 임상병리사 후진 양성에 힘썼다. 안찬 회장은 "33년의 공직 생활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협회와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위해 더욱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씨젠의료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주·호남 지역 **검체검사 전문수탁기관**

(재)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개원

환자 진료 지원 강화

철저한 온도관리 및 검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임상 진료를 위한 고품질 검체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 제공

실시간(Real-time) 검체운송 및 검사 시행으로, 가장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응급검사 시스템 운영

최적의 응급검사 시스템 운영으로, 병·의원 내 검사실처럼 맞춤형 검사 결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의료 발전 기여

검체검사의 현지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며 산학연 연계를 이루어 광주·호남 지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 (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